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부활 후 제6주일 소경 주일

성 테오도시아 수녀순교자
(제5조, 조과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 38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행 16,16~34 -- 255
- 복음경 : 요한 9,1~38 ---- 10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기타 성가, 성모송, 영성체성혈
송은 부활절 의식서 참고)

소경을 치유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땅의 흙을 취하여 사람의 몸을 만드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침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모든 은총이 그분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진흙으로 그의 눈을 고쳐준 분이 땅에서 난 분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치유를 증거할 여러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연못에서 눈을 씻자마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소경은 엎드려 절한 뒤 그분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선포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의 무게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가 평 수도원의 제가 쓰는 방에는 전기 히터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히터인데 상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이 ‘코로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히터를 만드는 회사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며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조그만 2층 건물에 걸린 간판을 보았습니다. 아련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미크론 수학 학원’이라고 쓰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의 막막해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했습니다.

몹쓸 전염병의 여파가 엉뚱하게도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할까요? 수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니 기가 찰 뿐입니다. 가격이나 성능이 비슷하다면 다른 제품 제쳐 놓고 굳이 코로나 히터를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학원도 제대로 운영이나 되겠습니까?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은 그리스어 알파벳 15번째 문자이지요. 원래 좋은 뜻이고 글자이건만

이제는 입에 담기도 싫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새삼 이름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사용하기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달이 되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영광된 이름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솔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웃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낙관주의의 힘

아타나시아 봉사자



최 근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행한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삶에서 낙관주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증명되었는데 그중 몇 가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낙관주의자들은 병에 덜 걸립니다.
2. 재치 있는 농담과 익살스러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은 소화와 혈액순환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암 환자를 상대하는 의사들은 낙관주의가 암과 싸우는 핵심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에이즈 환자가 만약 낙관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더 오래 삽니다.
5.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를 겪었어도 그 후에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삽니다.
6. 낙관주의자들의 상처는 더 빨리 낫습니다.

7. 병에 걸린 낙관주의자들이 신체가 건강한 비관주의자들보다 사망률이 더 낮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절망하는 태도는 분명히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악마는 언제나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도록 이끌고, 이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파괴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곧바로 그것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또,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서를 읽고 거룩한 신비의 성사들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6월 1일(수) 오전 9시
부활절 종례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 * 6월 2일(목) 오전 9시
승천 축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부활절 종례일 밤 예배
5월 31일 저녁 7:30
(부활절 밤 예배와 동일하게
거행됩니다)



소식

■ 교회 묘지 계단 공사 완료

용미리 교회 묘지 계단 공사가 완료되어 보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보수 공사를 위해 헌금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엘 김경철 군과 마리아 유수진 양(앙겔로스 유재원 교우 여식)이 지난 5월 21일(토) 거행된 결혼성사로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세요!

■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음식 축제를 오는 6월 12일(오순절 주일)에 개최합니다. 주변에 정교회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고 신자들의 친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

성인의 가르침

아토스 성산의
성 파이시오스
수도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갖가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사고일 수도 있고 또는 주위 사람들의 흉계나 모욕, 부당한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기보다는 그 모든 시련을 은총으로 여기고 참아 낼 수 있다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오히려 그를 우리의 큰 은인으로 여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늘에 재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으로 인해, 시련이라는 여권을 손에 쥐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행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낙원에 들어갈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쫓아버립니다. 사람이 만일 이 세상에 지고 있는 자신의 빛을 다 갚아 버릴 수 있다면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고 시련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